

맞벌이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 of Dual-Income Families

- Focusing on Integrated and Individual Financial Management -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겸임교수 정 주 원

교 수 박 명 희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 Jung, Joo-Won

Professor : Park, Myung-H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Abstract >

In this study, the various financial management systems practiced by modern dual-income families were assess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6 people, 3 practicing 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and 3 practicing individual financial management. The result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financial management methods regarding family structure, individual values, and family finances. Families that practiced individual financial management consisted of weekend couples without children who showed an individual-centered value tendency and seemed to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ir future economic situation due to possession of their own stabilized financial assets. Based on these results, we can expect more families to adopt methods of individual financial management and show a wider variety in their financial planning tools which will require adequate and efficient countermeasures and strategies suitable for each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

주제어(Key Words): 맞벌이가계(Dual-Income Families), 통합재무관리(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개별재무관리(Individual financial management)

Corresponding Author: Joo-Won J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3-26 Pildong, Jung-Gu, Seoul, 100-715, Korea
Tel: 82-31-265-8083 Fax: 82-2-2260-8750 E-mail: jjwchc@hanmail.net

1. 서론

근대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발달은 가족 형태와 가계 내 소득획득 변화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체제로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여성 경제활동의 확대에 의해 맞벌이 가계가 증가하게 되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1980년 40.0%, 1990년 46.8%, 2000년 48.7%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여성개발원, 2004).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만의 의지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위해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도 요구되어 지고 있다. 남녀고용 평등정책의 도입 즉 취업과 승진에서의 남녀불평등 제거 및 부부 산후 유급 휴가 제도 등이 정착되었으며, 직업영역에서도 성역의 구별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직장인 1100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맞벌이에 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가 맞벌이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를 하는 이유로는 풍족한 생활을 위해(47.7%), 자아성취를 위해(20.5%), 생계유지를 위해(11.6%) 순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06). 이와 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경제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개발을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맞벌이 가계는 더 이상 특별한 개념이 아닌 현대사회 보편적인 가계의 한 모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 가계의 증가는 가계 내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남성이 주소득 획득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가계소득구조에서 여성은 주로 소득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중심적이고 총괄적인 경제 의사결정권의 수행은 대개 남편들의 몫이었다(서병숙, 임정빈, 1981;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 1991).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며 가계 내에서 여성은 단순히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경제적 소득원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다.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부인이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획득하는 비율이 20.9%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남편보다 25% 더 많이 버는 경우는 13.3%이며 50% 이상인 경우는 7.4%로 나타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5).

이와 같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은 여성을 경제적 의존자에서 경제적 독립자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계 재무관리 행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연숙 외 3인의 연구(1991)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계관리는 소득을 합치지 않고 지출비목별로 책임을 분담하여 개별 지출하는 개별관리가 9.7%, 두 소득을 합쳐 관리하는 공동관리가 55.7%로 나타났으며, 경향신문(1996)의 '맞벌이 부부 라이프스타일 조사'에서는 부부가 각자의 용돈내역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소득을 부부별산제로 관리하는 경우가 14%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

무관리행동에 변화가 조금씩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김정훈(1996, 199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모두 주부의 취업을 원하고 있는 맞벌이 가계에서 부부 공동 가계경제권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가계재정관리 측면에서도 자신의 비자금 확보, 총재산에 대한 파악 등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과 생활비 관리 방식에 대해 문소정(1995)은 '수입과 생활비, 모두 아내의 관리' 유형과 '수입은 남편관리, 생활비는 아내 관리' 유형 및 '수입은 각자 관리, 생활비는 공동관리'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는데, 이 중 특히 세 번째 유형은 맞벌이 부부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재무행동으로서 개인주의화의 물결 속에서 개성과 인권을 존중하려는 경향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개별적인 관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기존의 가계재무관리 행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고 있는 현대 가계의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가계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계재무관리 행동 방법과 대처방안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맞벌이 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맞벌이 가계와 홑벌이 가계의 차이점 즉 맞벌이 가계의 생활시간 및 가사노동 분석, 부부갈등과 결혼 만족도 및 소비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여성의 취업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변화 및 추가되는 화폐소득으로 증가되는 가계의 구매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맞벌이 가계재무유형에 관한 연구는 양적인 연구가 주를 이룸으로서 보다 깊이 있는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고정자, 1994; 김명자, 1981; 김순미, 1993; 김정훈, 1995; 이무영, 이정우,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재무관리 유형인 통합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와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맞벌이 가계의 구조적 배경이 무엇이며, 그러한 재무관리 행동을 취하게 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맞벌이 이유와 가치 성향은 어떠한지 아울러 각 가계의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행하는 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질적인 면접방법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탐색 자료가 될 것으로 변화하는 현대 가계의 실질적인 배경과 재무관리행동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달라지는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맞벌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무관련 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면접대상자의 특성

가칭	본인 연령	본인직업	본인 월평균 소득(만원)	남편 연령	남편직업	남편 월평균 소득(만원)	부채/자산	거주지	가족관계	맞벌이 연수	재무관리 형태
A	42	간호조무사	110	46	회 사 원	200	2억/3억	경 기	남편 2남	6년	통 합
B	30	학원강사	180	35	토목기사	350	2천만원/2억	서 울	남편 1녀	5년	개 별
C	40	선 생 님	230	42	선 생 님	270	3천만원/4억	경 기	남편	9년	개 별
D	35	학원강사	350	35	학원강사	350	1억5천/2억3천	서 울	남편 1녀	6년	통 합
E	33	은 행 원	180	37	회 사 원	250	1억8천/2억5천	서 울	남편 1남	7년	통 합
F	45	회 사 원	450	48	회 사 원	300	없음/8억	서 울	남편	5년	개 별

* 본 면접대상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표시하였음.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질적 사례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도적 판단적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면접대상자 선정기준은 민속학적 연구방법에 준하여 결정되었는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목적에 문화화(through enculturation)되어 있으며 관여되어 있는 상태(current involvement)여야 한다. 이는 면접대상자가 현 시점에서 연구의 주제가 되는 문화상황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면접대상자는 면접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면접이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회에 걸쳐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면접대상자는 가급적 비분적(nonanalytic)일수록 좋다. 이는 어떤 개념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자신의 분석적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면접 대상자보다는 개념이나 상황자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면접대상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pradley, J. P., 1979: 45-5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현재 맞벌이를 경험하고 있는 30~40대 기혼 여성 중에서 부부의 소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여성 3명과 개별적으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여성 3명을 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맞벌이 연수가 5년 이상씩 되며 맞벌이 유지에 대해 강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바쁜 시간이지만 면접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내어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며 답변하기 보다는 자신의 생활 속 경험을 설명하기를 즐기는 비분석적 면접자들이다.

면접 조사방법으로는 우선 면접대상자가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인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문항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만들어 자유롭게 직접 기입 작성하도록 배려하였으며, 이 외에 맞벌이 가계의 재무관리 행동과 관련된 사항

들은 2차에 걸친 대면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추가적인 면접이 필요한 경우는 전화와 메일을 이용하였다. 심층면접 시에는 녹취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상황에 대한 기록도 함께 하였다. 면접장소로는 면접대상자 모두 바쁜 직장인이므로 직접 직장을 방문하거나 근처의 조용한 장소를 이용하였다. 면접 시기는 2005년 4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각 면접대상자와의 면접시간은 1시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대상자 6인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면접대상자로부터 맞벌이 가계의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가계재무관리 유형은 맞벌이 가계가 두 소득원을 합쳐서 일인이 관리하는지, 두 소득을 합치지 않고 각자 개별 관리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합재무관리라 함은 남편과 부인의 소득 모두를 통합하여 한사람이 관리하는 형태로 본 연구에서는 면접자인 부인이 주 관리자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재무관리는 서로의 소득과 지출에 간섭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자 관리를 하는 유형이다. 심층면접결과 각 재무관리 유형을 취하고 있는 가계에서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적 측면 그리고 가계재무적인 측면에서 대별되는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우선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들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먼저 알아본 후 이들의 결과를 통해 두 재무관리가계의 특징을 비교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통합재무관리 가계

1) 부부·자녀 공동생활 가족형태와 통제적 재무관리

통합 관리 유형은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합하여 남편이나 부인 중 한사람이 계획하고 지출하는 재무관리 유형인데 본 면접에서는 면접대상자인 부인이 모두 관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무관리 유형을 취하고 있는 이는 면접대상자 중 간호조무사를 하고 있는 A씨와 학원 강사 D씨, 은행원 E씨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계는 현재 모두 가족과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가 다 관리해요. 남편이 벌어오는 것도 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잘 책임지고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애들 아빠야 바쁘고 꼼꼼하게 잘 못 챙기는 편이라. 이자에 세금, 애들 교육비다 돈 들어가는 거 정신없거든요. 결혼 초기부터 관리를 내가 했고 일 다시하면 서로 다 내가 하는 거죠. 뭐. 지금은 내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 지금처럼 절대 돌아가지 않죠. 그나마 내가 돈을 벌고 관리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앞으로가 걱정이죠 뭐. 애들은 크고 있지.” - A

“남편도 같이 학원을 해요. 학원이란 게 그렇잖아요. 리듬을 안 타는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게 있거든요. 워낙 학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마냥 관찮을 거란 생각이 안 들어요. 불안하죠. 한번 회원들 빠져 나가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려요. 거기다 나가는 돈도 많고. 남편이 적게 버는 건 아니지만 각자 버는 만큼 쓰는 것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딱 묶어서 관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안돼요. 버는 것 같아도 물 흐르듯이 다 나가버리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넉넉하지 않아요.” - D

“은행에 근무하다 보니 돈에 대해서는 좀 빠른 편이에요. 세금관계도 그렇고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여기다 보니 제가 관리를 다하죠. 우리 남편도 곧잘 하겠지만 왠지 미덥지 못해요. 남자들은 충동적으로 욱하며 쓰는 돈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돈 만지니까 솔직히 돈 관리하기 싫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맡기면 불안하죠. 형편도 좋은 편이 아닌데 아직까진 아용바둥 살아야 해요. 그건 여자들 잘 하잖아요.” - E

A, D, E씨는 재무관리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여 관리를 잘 하는 한 사람이 통합 관리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잘 책임지고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애들 아빠야 바쁘고 꼼꼼하게 잘 못 챙기는 편이라(A).’, ‘각자 버는 만큼 쓰는 것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딱 묶어서 관리를 해야 해요(D).’. 이와 같은 의견들은 재무관리에서 통제적 재무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남편과 부인의 소득을 모두 합쳐 한 사람이 관리를 할 때 지출규모를 통제하기 용이하며 계획적인 재무 이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관리 하지 않을 경우 ‘버는 것 같아도 물 흐르듯이 다 나가버려(D).’ 맞벌이에 대한 소득의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가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사례에서 통합재무관리의 주 관리자가 모두 면접대상자인 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주부들은 ‘돈 관리하기 싫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맡기면 불안하다(E).’는 점 때문에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남성보다 여성이 돈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절제된 관리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절제된 재무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므로 아용바둥 살아야 한다(E).’는 주부들의 강한 경제적인 의지가 관리 행동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통합재무관리를 행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넉넉하지 않은 재무 상황에서 통제가 용이한 재무관리방법을 취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은 맞벌이를 하는 이유를 통해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2) 경제적 이유로 유지하는 맞벌이

“경제적으로 하도 힘이 들어 일 다시 시작했죠. 아무리 절약하고 살아도 남편 월급만으로 살기 힘들더라고. 애들 교육비에, 집 장만에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한 사람 벌이로는 힘든 세상이었어요. 남편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나도 언제까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장도 없는 거고. 나이 너무 많으면 간호조무사도 못하거든요. 내가 별면서 붙들고 관리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억척스럽게 안 살면 힘들어요. 요즘세상.” - A

“아이 낳으면서 잠시 쉬었어요. 결혼하고 계속 같이 벌다가 아이 태어나면서 혼자 버니까 생활이 참 갑갑하대요. 학원 강사가 그렇거든요. 생명력이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아이 맡기고 다시 시작했죠. 몸은 힘이 든데 집도 마련해야 하고 학원도 자리 잡게 하려면 해야죠. 돈 벌 수 있을 때 벌어나야지.” - D

“솔직히 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힘들어요. 애도 아직 어린데... 그래도 조금 더 고생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 해야죠. 남들은 자기 개발이다 뭐다 하는데 그런 거 다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돈 때문에 일해요. 돈 걱정 안하고 남편 월급 받으며 편하게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못살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적금 넣으며 돈 불어내는 거 보는 낙으로 살아요.” - E

면접대상자들 중 간호조무사 A씨는 ‘경제적으로 하도 힘이 들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맞벌이를 유지하게 하는 그 이유는 ‘애들 교육비, 집 장만, 나중에 밥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로 가계에서 중요 경제적 목표로 인식되는 것이 자녀 교육비마련과 주택 자금 마련 그리고 노후준비 자금임을 알 수 있다. 면접대상자 D씨는 맞벌이를 하다 아이 출산으로 한동안 쉬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편 혼자만의 소득만으로는 갑갑하여’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경제적 이유는 ‘집도 마련하고 학원도 자리 잡게 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면접대상자 E씨는 ‘솔직히 힘들어요. 애도 아직 어린데.’라며 어린 자녀 때문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홀벌이 보다는 맞벌이가 주는 경제적 소득 효과가 높으므로 즉 ‘돈 때문에’ 맞벌이를 계속 하

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자기 개발로 맞벌이를 한다는 것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E)'로 여기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자녀 교육비 마련과 주택 자금 마련과 같은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두고, 현재의 넉넉지 않은 가계경제에 도움을 줌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앞으로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경제적 요구에 의해 맞벌이를 유지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부분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참여욕구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득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가계경제를 위해 맞벌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연숙 외 3인, 1991). 한편 통합재무관리 가계의 소득 욕구에 의한 맞벌이 유지는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상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남편만 바라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A)', '학원 강사가 생명력이 긴 것도 아니고(D)' 라는 언급에는 남편의 실직, 사업운영의 어려움, 자신이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드러나고 있다. 즉 보장되지 않은 고용 현실과 불안정한 경제 체제에서의 사업운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은 맞벌이를 유지하게 하는 강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이 통제적인 재무관리로 이끌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면접결과를 통해, 통합재무관리를 운영하는 면접대상자들이 맞벌이를 유지하는 강한 동인은 경제적인 이유이며, 이러한 경제적인 중요성은 관리 행동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통제하기 용이한 통합재무관리 시스템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불안정한 재무상황과 가족중심 자산 소유

통합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가계의 재무상태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산소득을 취할 수 있는 자산의 소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부가 벌고 있는 현 소득에 대해 심리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부채와 축적된 자산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누구는 맞벌이 하니까 여유 있겠다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안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히 낫겠죠. 그래도 빠듯하게 느껴지는 적도 많아요. 보너스 나오는 달은 좀 낫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이 들어요. 원래 결혼할 때 없이 시작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거야 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같고 사는 집이 다고 그나마 이 집도 산다고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해야 하나. 이자만 100만원이 나가는데, 주택 이자만 생각해도 답답하죠. 빨리 갚아야 하는데." - A

"작년에 학원 한다고 빚을 많이 받았어요. 절반이상을 빚으

로 충당했으니 이자가 얼마겠어요.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빚 없이 시작하거나 빚이 조금이면 모르는데 워낙 없이 시작해서, 거의 2/3는 대출 받았거든요. 버는 거 이자 나가고 학원 운영비에 생활비하다 보면... 남들보다야 많이 버는 편인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일단은 빚부터 다 갚아야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 눈 부릅뜨고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이러 저러 다 새 나갈텐데." - D

"시댁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거의 우린 독립 운동한 셈이에요. 좋은 말로 자수성가지. 돈 없어요. 집이 다죠 뭐. 은행에 있으니까 대출관계에서 도움을 받아 집 사고... 집 구입할 때 70%정도 대출받고, 돈 벌어서 약삭같이 살다 보니 나갈게 많으니 둘이 벌어도 많이 번다 생각 안 들어요. 몰라 재산이라도 많으면 모를까..." - E

면접대상자 A, D, E씨는 맞벌이를 하므로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하고 학원을 운영하느라 현재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채역의 부담이 가계재무관리 운영에 강한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축적되어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 부부가 벌고 있는 근로소득원에 의존해서 생활을 운영해야 하므로 규모적인 가계운영을 위해 '눈 부릅뜨고' '약삭같이' 재무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 결혼할 때 없이 시작해서, 가지고 있는 거야 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자만 100만원이 나가는데(A)', '작년에 학원 한다고 빚을 많이 받아, 눈 부릅뜨고 관리 안 할 수가 없어요(D)', '우린 독립 운동한 셈이에요. 돈 없어요. 집이 다죠(E)' 라는 의견들은 면접대상자들이 주위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신들만의 의지로 가계경제를 운영해 오며, 취약한 자산규모와 많은 부채 속에서 가계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적인 경제적 복지를 위해 통합적인 재무관리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 자산 관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면접대상자들이 따로 개인적인 비자금 관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의 명의는 세금 및 이자율과 관련하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의 명의로 된 부분이 다소 우위를 차지하나 면접대상자 명의로 된 자산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 위해 써야지 하다가도 지나고 쓰는 것 보면 다 가족위해서 쓰게 되요. 그게 또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내가 관리 하니까 조금씩 따로 저금하기는 쉬워요. 그래도 그게 어디 비자금인가요? 집 살 때 일부 들어가고 남편 사고 났을 때 들어가고 그렇게 쓰게 되요. 공동명의로? 여자도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있어야죠. 저축통장은 제 앞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칼로 자르듯이 잘 안 돼요.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집은 남편 이름으로 했는데 어찌 좀 그런 기분이 들긴 했죠. 집이 제일 재산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소득이 많으니까 은행

에서 혜택 보려면 대출받은 남편이름으로 하면 좋아서 그렇게 했어요. 같이 사는데 내꺼 니꺼 어디 있겠어요. 깔고 살고 있는데 망말로 돈이 많아 몇 채 있는 것도 아니고.” - A

“학원은 남편이름으로 했어요. 같이 공동으로 할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같이 사는 거고 이리 저리 머리 아프더라고요. 대출문제도 있고 해서. 금방 갚아 질 것도 아니고 남편은 계속 일할 거니까요. 저금은 누구로 하는 게 좋은지 따져서 해요.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있어요. 여자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돈 버는 재미도 나고 든든하죠.” - D

“은행에 있으니까 이율 적용이 좋은 걸로 결정해요. 물론 제 이름도 있죠. 그 정도는 있어야 돈 버는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잖아요. 근대 집은 남편이름으로 했어요. 공동으로 하고 싶어 이야기는 했는데, 세금이 걸리대요. 나라법이 안 도와 주더라구요.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더 내야 된대요. 저희 사는 곳이 뭐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 전매가 안 된대나. 그러니 어떡해요? 팬시리 세금을 몇 백 더 낼 필요 없고 남편이름으로 있는 거지요. 이름 쓸 때 기분이 좀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별 신경 안 써요. 같이 사는 집인데요 뭐.” - E

면접대상자들은 자신이 맞벌이를 하면서 재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따로 저금하기는 쉬워요(A).’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있죠(D, E).’라며 비자금 소유를 비교적 쉽게 하게 된다고 언급한다. 비자금을 사용하는 용도는 ‘집 살 때 일부 들어가고 남편 사고 났을 때(A)’로 나타나, 비자금의 주요 목적이 위급한 상황이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가족 전체의 소비와 복지를 위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산관리에서 명의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여자도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 있어야(A).’ ‘여자도 당연히 있어야(E).’라며, 부부 공동명의로 대해 당연시하고 동의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인 자산 명의로 관리에 있어서는 맞벌이 하는 소득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은행 혜택은 대출받은 남편이름으로 하면 좋아서(A)’ ‘저금은 누구로 하는 게 좋은지 따져서(D)’로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부 각 연봉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맞게 명의를 사용한다거나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한 사람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혜택을 받고자 한다는 것이다.

실제 명의 자산에 대해 알아보면 면접대상자 A, D, E 모두 ‘집 또는 학원을 남편 이름으로’ ‘저축통장은 자기 앞으로’라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경우는 남편 명의로, 금융자산의 경우는 부부 각각 명의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집이 제일 재산

이 커(A)’ 즉 자산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면접대상자들은 공동명의로 대해 인지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명의를 공동명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면접대상자 A와 E씨는 집을 남편의 명의로 두고 있으며, 학원을 운영하는 D씨는 대출관계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학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금융적인 혜택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유이기도 하지만, 면접대상자 자신이 남편 소유 자산에 대해 전혀 경제적 분리를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같이 사는데 내꺼 니꺼 어디 있겠어요(A).’ ‘별 신경 안 써요. 같이 사는 집인데요(E).’라는 언급을 통해 실질적인 재무관리를 본인이 담당하고 있고, 주택을 주거용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남편명의로 대해 경제적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남편명의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본인보다 남편의 소득이 많고 남편이 더 오래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공동명의로 대한 세금부담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더 내야 된대요(E).’). 한편 면접대상자들은 예금 및 보험에서 본인의 명의로 된 자산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통합재무관리 면접대상자들은 가계의 경제적 측면을 중요시하며 각자의 삶보다는 함께 벌어서 함께 지출하여 최대의 복지를 누리자는 공동체적 생각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맞벌이 소득을 각각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여기기보다는 각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전체론적 관점에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각 소득은 소득획득자 자신의 소득이기 전에 가족 전체를 위한 소득으로 간주되고 있다.

2. 개별재무관리 가계

1) 주말부부 또는 무자녀 가족형태와 자율적 재무관리

개별재무관리 유형은 남편과 부인이 각각 따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유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대상자 학원 강사 B씨와 고등학교 선생님인 C씨, 회사 간부로 재직하고 있는 F씨의 경우가 각자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은 급여통장이 각각 있고, 회사 월급날이 다르니까 처음 신혼 때부터 각자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남편이 토목업을 하니까 지방으로 많이 다니게 되고... 저도 직장이 있으니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주말부부를 하게 됐죠. 그러다보니 계속 각자 관리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누가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함께 관리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용돈 주거나 하면 남편도 용돈 타 쓰기 갑갑할 거고, 어디 쓸 일 있을

때마다 일일이 말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애기한테 들어갈 돈만 같이 돈을 내고, 그 이외는 거의 따로 관리해요.” - B

“둘 다 선생님을 하는데 지역이 달라 주말부부해요. 아이도 없고... 일 하는걸 워낙 좋아하니까 떨어져 지내며 각자 생활을 하고 있죠. 거처하는 집도 따로 있고 요즘은 한달에 두 번 정도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각자 생활을 하게 되네요. 워낙 서로 독립적으로 지내다보니 편하고 좋아요. 돈도 서로 떨어져 각자 관리하며 살아요. 전 그 사람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도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 모를걸요.” - C

“우린 워낙 각자 생활이 전문적이다 보니 서로 간섭 할 수가 없죠. 서로 이미 알고 결혼했고, 결혼 전에 각자 집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 살던 방식 그대로 사는 부분이 많아요.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각자 관리 하는 게 외려 편하죠.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공동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그리 많지 않고, 서로 간섭하면 힘들어서 곤란해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걸 좋아하고.” - F

영어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 B씨는 토목기사를 하고 있는 남편과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다. 서로 떨어져 있고 ‘회사 월급날이 다르니까 처음 신혼 때부터 각자관리를 해서’ 현재 아이에게 들어가는 공동부분을 제외하고는 개별적인 재무관리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로 재직 중인 C씨는 ‘둘 다 선생님을 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남편과 현재 주말부부이다. ‘아이도 없고, 일 하는걸 워낙 좋아해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별재무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에 ‘편하고 좋다’ 라고 언급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개별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F씨의 경우는 회사 간부로 근무하고 있으며 만혼을 한 경우로 아직 아이가 없다. ‘결혼을 늦게 하여 각자 관리 하는 게 외려 편한’ 전문직 부부는 이미 오랜 독신생활을 통해 형성되어온 개인생활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서로 개별 재무관리를 하고 있다.

위의 세 사례를 통해 개별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의 특징적인 환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가 아직 없다는 것(C, F) 과 ‘주말부부를 취하고 있다는 것(B, C) 이다. 이러한 환경 조건은 개별재무관리를 하게끔 하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생활을 꾸려나가게 하는 촉진적인 환경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별재무관리 사례 가계의 또 다른 공통적인 사항은 면접대상자들이 경제적으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인 삶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누가 건드리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B) ‘서로 간섭하면 힘들어서 곤란해요(F) 라는 것은 공동적인 삶보다 개인적인 삶의 자유와 경제생활을 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면접대상자들은 결혼 전부터 또는 결혼 초기부터 형성되어온 개별적인 삶의 중요성을 결혼과정에서도 계속 유

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측면은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에서도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2) 자기개발을 위해 유지하는 맞벌이

개별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적인 측면에 앞서 자신의 삶에 대한 존재 의식과 자기만족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직장 생활하는 게 좋아요. 아이 낳으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쉬 적이 있는데 참 답답했어요. 무기력해 지고 우울해 지고..... 돈 버는 것 보다 일을 안 하는 게 사람을 바보 만들어요. 일하는 자체를 좋아해요. 그러다보면 돈은 따라오니까요. 신량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 B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하며 제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만약 지금 돈 안 줄 테니 가르치라고만 해도 할 것 같아요. 일은 돈 그 이상이니깐요. 그러니까 남편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도 내 일을 고집하는 거죠. 일 하는 내 자신이 참 좋아요. 남편이나 나나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고 경제적으로 그리 신경 쓰는 건 없어요. 아이가 없어서 더 그런 거 같아요.” - C

“지금은 일 하지 않는 저를 생각 할 수 없어요. 돈을 떠나서 지금 일 자체를 즐기니까요. 일 때문에 결혼도 늦게 했는데요. 저는 결혼보다 일이 먼저예요. 돈은 그리 신경 안 써요. 친정도 시댁도 풍족한 편이고 남편이나 나나 싱글 일 때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 돈은 전혀 신경 안 써요. 능력 인정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나니까요.” - F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면접대상자들은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 하지 않아요(B), ‘지금 돈 안 줄 테니 가르치라고만 해도 할 것 같다(C), ‘돈을 떠나서 지금 일 자체를 즐긴다(F),’ 라고 말하고 있어, 단순히 경제적 소득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자기만족과 자기개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대상자 B씨는 잠시 직장을 쉬는 동안 ‘돈 보다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무기력하며 우울함’을 경험하였으며, 면접대상자 C와 F씨는 일을 통해 ‘살아있는 걸 느끼고’ ‘능력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나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해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면접대상자들이 경제적인 측면보다 일 자체에 대해 의미를 두는 것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의지 그리고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기인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면접대상자 모두 ‘신량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니고(B) ‘안정되어 경제적으로 그리 신경 쓰지 않아(C) ‘친정 시댁이 풍족한 편이고 어느 정도 자리 잡았기 때문에(F) 경제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을 중요

시하는 통합재무관리 결과와 대비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안정감 정도가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와 재무관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안정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계에서는 경제적 이유에서 맞벌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측면이 가계재무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통제가 용이한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게 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계에서는 금전적인 의미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 의식에 의해 맞벌이를 유지하려고 하며, 이러한 성향은 보다 자율적인 개별재무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3) 안정된 재무상황과 개별 자산 소유

재무상태 측면을 살펴보면,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통합재무관리보다 상대적으로 자산대비 낮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자 개별계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명의로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말 부부의 경우는 각자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재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세 식구 살만 하죠. 빚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남편이 알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이름으로 대출 받았으니까요. 그래도 토목 관련업을 하다보니 이득을 많이 보는 편이죠. 집에 대해서는 저흰 각자 청약 통장, 보험, 저축 다 따로 들어요. 각자 자기 이름으로 들고 있죠. 아이한테 드는 비용만 남편이 많은 부분을 내요. 80만원 정도, 나보다 많이 벌거든요. 저는 아이 앞으로 보험 들고 있고요. 생활비야 주중에는 각자 생활하고 주말에는 각자 카드로 써요. 이번 주에 장보면서 내가 카드 긁으면 다음 주에 자기가 긁고, 외식하게 되면 서로가 번갈아가며 내고.” - B

“남편은 전주에 집을 가지고 있고 저는 수원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산다고 빚을 내기는 했었는데 거의 다 갚고 얼마 없어요. 서로 용자내서 집 사고 각자 명의로 하죠. 주말 부부 하니까 각자 생활비 따로 쓰고, 주말에 제가 전주로 가면 남편이 주로 쓰고, 남편이 수원으로 오면 제가 한 톱 내는 거죠. 하하하 재밌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연애하는 것 같고. 저축, 보험은 각자 알아서 해요. 의논은 하죠. 저축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험은 알아요. 서로 수혜자를 부부로 하는데 당연히 알아야죠. 저흰 아이가 없으니까 그리 큰 돈이 들어갈 것도 없고 가끔 친정이나 시댁에 보조 해주는 게 다죠. 시댁에는 제가 하고 친정에는 남편이 하는 편인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 C

“결혼 할 때 서로 오래 직장생활해서 각자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사는 집은 결혼 할 때 새로 구입을 했는데, 공동명의로 했죠. 반반씩 들었을 거예요. 여자가 살림하고 집은 남자가 하고 그러던데 저흰 나이 먹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졌어요. 실리적으로 살아야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권리를 가져야죠.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있죠.

저금도 알아서 하고, 결혼할 때 보험도 다 들고 있었고, 솔직히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생활비는 서로 조금씩 내요. 밥이야 거의 외식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어쩌다 요리해서 먹으니까 각자 쓰는 게 더 많네요. 그걸로 관리비 내고 세금내고 정도 하는 거죠.” - F

면접결과, 개별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안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개별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씨의 경우는 아이에 대한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고 자신은 아이의 보험금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자 자기 이름으로 청약 통장, 보험, 저축 다 따로 들어’ 라는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소유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 부부인 선생님 C씨는 ‘남편은 전주에 집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수원에 집을 가지고 있어’ 라고 언급하여 생활면에서나 자산소유면에는 상당히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실물자산인 집은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저축, 보험은 각자 알아서’ 관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집의 경우 개인별로 따로 용자를 받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산운용에서도 개별재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접대상자 C씨는 주중에 서로의 생활지역에서 각자 생활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함께 만나는 주말에는 ‘전주로 가면 남편이 주로 쓰고, 남편이 수원으로 오면 (자신이) 한 톱 내’ 번갈아가며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오랜 직장생활 끝에 만혼을 한 F씨 또한 개별 계좌를 운영하며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공동명의로 서로 반반씩 부담하여 구입한 것이다.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면접대상자들은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F)’ 하므로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자산운용에서도 금융자산 뿐 아니라 실물자산(부동산)에서 본인 명의의 자산을 소유하는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통합재무관리와 비교되는 결과로 개인화된 자산 소유 의식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부의 소득을 공동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통합재무관리자와는 달리 개별재무관리자들은 부부의 소득을 독자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도 각자의 명의로 하거나 공동명의를 채택하여 동일한 권리를 취하고 있으며, 금융자산도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부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변화하는 가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면접대상자 B씨는 개별재무관리로 인한 아쉬운 점으로 자산의 축적 속도가 다소 늦어진다고 언급하였다. 개별적인 자율성이 ‘너무 편해’ 좋지만 각자의 경제권에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자산 축적 달성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씩 돈 모으는 데 너무 신경 안 쓰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관리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어쩌다 친구들 만나거나 아이 크는 것 보면 한번씩 그런 생각해요. 대부분 주위 친구들은 저랑 다르게 살잖아요. 어떻게 모으려고 남편 것까지 총동원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살더라고요. 2년에 얼마를 모았네, 어찌네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혹 우리만 너무 뒤처지게 가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럴 때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죠.” - B

면접대상자 B씨는 본인과 다른 방법으로 재무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의 개별재무관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짐에 걱정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개별재무관리에 요구되어지는 보완점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추구하면서도 자산형성에 있어서 통제력 있는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 통합재무관리가계와 개별재무관리가계 비교

이상의 면접결과를 통해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사례 가계들의 특징적인 차이를 크게 3가지 측면 즉 가계 구조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가계 재무적인 측면으로 재분류해 보았다. 부부·자녀 공동생활 가족형태와 주말부부 또는 무자녀 가족형태로 대별되는 특징은 가계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점으로 보았으며,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 및 재무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치 성향은 개인적인 측면으로 보았다. 그리고 부채 및 자산규모에서의 경제적인 안

정과 재무 인식, 자산 소유 상황은 가계 재무적인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펴본 각 사례가계들의 면접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1) 가계 구조적인 측면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는 부부·자녀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체계로 나타나는 반면 개별재무관리 행동을 취하는 가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주말부부인 경우와 아이가 아직 없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별 재무관리를 하는 B씨는 남편이 토목 기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야 하는 주말부부로 이러한 가정환경은 더욱 각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C씨는 각자 다른 지방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주말부부로 아이가 아직 없는 경우이다. F씨는 만혼을 하여 아이가 없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이가 없고 각자의 직업을 유지하며 주말부부를 취하게 되는 환경적인 측면이 공동된 생활의 영역을 감소시키므로 개별 재무관리를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유지되는 맞벌이 주말부부라는 가족체계가 자율적이며 개별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환경요인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즉 각자의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주말부부 체제에서는 개인적인 지출구조에 대해 공통적인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재무관리로 유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는 가계의 구조적인 측면이 재무관리 행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성의 직

<표 2> 통합재무관리 가계사례와 개별재무관리 가계사례 비교

		통합재무관리 가계 사례			개별재무관리 가계 사례		
		A	D	E	B	C	F
가계 구조적 측면		남편 자녀와 공동생활	남편 자녀와 공동생활	남편 자녀와 공동생활	주말부부 (자녀 본인 돌봄)	주말부부 무자녀	주말부부 무자녀
개인적 측면	맞벌이 유지 이유	자녀 교육비, 집 대출금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 위해	일 자체를 좋아해서	교사로서의 자긍심, 만족	능력인정 자기개발
	가치 성향	가족 중심 공동체 성향	가족 중심 공동체 성향	가족 중심 공동체 성향	개인적인 성향	개인생활 중시	개인생활 중시
가계 재무 측면	재무상황	높은 부채 주택 대출자금 (매달대출이자 100만원)	학원 개업자금비 2/3대출 높은 학원 운영 비용	주위 도움없이 자립, 주택 대출자금70%	낮은 대출금, 안정적	대출금 거의 없음, 경제적 안정	대출금 없음 경제적 안정
	재무인식	부부 소득은 공동 소득	부부 소득은 공동 소득	부부 소득은 공동 소득	각 개인소득으로 간주	각 개인소득으로 간주	각 개인소득으로 간주
	미래 가계 재무기대	보장되지 않은 고용현실, 불안함	불안정한 사업 경기, 불안함	고용불안	비교적 낙관, 개별 관리로 인한 낮은 자산축적 걱정	안정적인 교사 직업 낙관적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낙관적
	자산 명의	본인명의 저축통장 소유주택 남편명의	본인명의 저축통장 소유학원 남편명의	본인명의 저축통장 소유주택 남편명의	개인 청약, 저축 통장, 보험 소유	개인 명의 저축, 보험 전주/수월애 각자 명의 주택소유	개인 명의 저축, 보험 공동명의 주택소유

업 성취 욕구로 맞벌이 주말부부 형태가 증가할 경우 가계재무관리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개인적 측면: 맞벌이 이유와 개인적 가치

각 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특징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맞벌이를 하는 이유와 개인적 가치 성향에서 드러나고 있다.

통합재무관리를 취하는 면접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맞벌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면접대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의 자기 개발에 보다 더 의미를 두고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맞벌이를 유지하는 다른 동인들은 가계재무관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즉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동인인 가계에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통제하기 용이한 통합재무관리를 취하며, 자기 개발이 우선 동인인 가계에서는 개인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개별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가치 성향의 차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통합재무관리를 하는 면접대상자들은 개인적인 삶보다는 가족 공동체적인 삶에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향은 관리행동에도 영향을 끼쳐 가족 공동의 목표를 위해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면접대상자들은 독자적이며 개인적인 삶을 보다 중요시하여,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통합재무관리 가계는 각자의 소득을 가계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반면 개별재무관리 가계는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이며 독자적인 소득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계 재무적인 측면

면접대상자들은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가계의 재무상황이 가계 재무관리 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정도와 부채규모, 미래 재무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여부가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자산대비율은 높은 부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재의 재무상황에 대한 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보장되지 않은 고용 현실과 불안정한 사업운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재와 미래 재무상황에 대한 불안과 낙관적이지 않은 기대는 보다 통제적이고 경제적인 재무관리 행동으로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 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탄탄한 자산과 낮은 부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미래 재무상황에 대해서 비교적 낙

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와 미래에 대해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 보다 개인적인 자율성을 강조하는 재무관리 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재무관리행동은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는데,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면접대상자들은 자산관리 시 남편과 동등하게 자신의 명의로 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통합재무관리 면접대상자들은 본인 명의 자산 관리에 동의하는 반면,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에서만 본인명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재무관리가계는 각자의 소득을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하므로 자산 소유에 있어서도 독자적인 개인 명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통합재무관리가계는 각자의 소득을 전체 소득의 관점에서 관리하므로 재무관리에 유리한 명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여성 교육기회의 확대 및 남녀 고용 평등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적인 의지와 가족 경제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맞벌이 가계는 더 이상 특별한 개념이 아닌 보편적인 가계의 한 모습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 가계의 증가는 여성을 경제적 의존자에서 경제적 독립자로 가능하게 하였으며, 가계재무관리 행동에도 영향을 끼쳐 개별적인 재무관리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보편적인 가계 재무관리 행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가계의 재무관리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대 가계의 지속적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가계재무관리 행동 방법과 대처 방안이 요구되어 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맞벌이 가계 중 통합재무관리를 취하는 면접대상자 3인과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면접대상자 3인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에서 가계 구조적인 측면, 개인적인 측면, 가계 재무적인 측면에서 다른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가계구조적인 측면에서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는 부부·자녀와 함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구조로 나타나는 반면 개별재무관리 행동을 취하는 가계는 주말부부인 경우와 아이가 아직 없는 경우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맞벌이를 하는 이유와 개인적

가치 성향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통합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맞벌이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개인의 자기 개발에 더 의미를 두고 맞벌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가치 성향에서 통합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가족 공동체적인 삶에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독자적이며 개인적인 삶을 보다 중요시하여 각자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셋째 가계재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통합재무관리를 취하고 있는 가계는 상대적으로 자산대비 많은 부채율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현재와 미래 재무상황에 대해 불안과 낙관적이지 않은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재무관리를 하는 가계는 탄탄한 자산과 상대적으로 적은 부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래 재무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특징이 나타났는데, 개별재무관리행동을 취하는 가계는 자산관리 시 남편과 동등하게 자신의 명의로 된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균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 통합재무관리가계는 본인 명의자산관리에 동의하는 반면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금융자산에서만 본인명의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가계재무관리행동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재무관리 가계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가계 구조로 보아, 가계의 구조적인 측면이 가계재무관리행동의 영향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여부와 주말부부 형태는 가족 공동생활 영역 범위와 크기에 영향을 끼치면서, 경제생활부분에서도 다른 재무관리행동을 취하게 하는 환경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가계구조에 맞는 개별적이며 적합한 재무관리 대응방안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주 5일제 근무가 확장되고 있으며, 교통편의가 더욱 좋아지면서 맞벌이를 유지하는 주말부부 가계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허경옥, 2003). 2005년 인구주택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가 2.9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1980년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1명에 이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저출산과 주말부부, 그리고 기러기아빠의 증가 등으로 언급되고 있다(매일경제, 2005). 이와 같이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측되는 바, 다양한 가족적 상황과 변화하는 가계의 모습에 적합하고 유용한 재무관리 조언과 지침서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 재무관리 형태는 이외에도 관리의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날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계복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재무유형에 맞는 관리 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아울러 사회 제도적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맞벌이를 유지하는 이유와 가치성향이 각 가계재무관리행동에서 대별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무관리자의 취업 동인과 성향이 가계재무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인중심적인 가치성향이 강한 면접대상자가 결혼을 하여도 경제적 공유보다는 경제적 독립과 분리를 선호하는 것은 달라지고 있는 가계의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계라 함은 자원과 목표 및 가치관을 공유하는 가족구성원으로 가계의 경제활동은 공동소득에 의지하여 이루어진다(윤정혜, 이기춘, 성영애,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재무적인 측면에서 각자 소득을 관리하며 소비에 있어서도 서로 관여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화가 점차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향후 가계재무관리형태도 상당부분 독립적이며 분리적인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러한 변화에 맞게 적합한 관리방법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즉 개별재무관리 행동이 가계에 미치는 가족구성원간의 심리, 정서적 유대관계 및 영향력, 그리고 가계 복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완되어져야 한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계의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책을 강구함으로써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의 자산 소유 의식이 나타나고,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서 공동명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실질적 의미의 경제력 확보가 가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가계에서 각자 소득의 일부를 각자의 자산으로 소유하는 것을 당연시함으로써 관리뿐 아니라 소유에서도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외형적으로 관리의 주체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담보 받지 못한 여성의 경제력에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근 부부간의 평등성이 추구되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부부 공동명의의 소유권 등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변화를 맞고 있다(변화순, 백경희, 김현주, 2001). 이는 이제 여성이 경제적 관리자에서 동등한 소유권리자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권에 대한 중요 의사결정을 여성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여성의 경제적 관리 능력 배양과 함께 재무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지금까지 중요 재무관리의 의사결정이 경제권을 소유한 남성 중심으로 행해

졌다면, 앞으로의 재무관련 의사결정은 공동에 의해 또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의 성공적이며 안전한 재무관리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 함양과 함께 재무관리 기술의 습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재무관련 부분에서 여성에게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계속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재무관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 통합재무관리와 개별재무관리를 취하는 맞벌이 가계의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 가계재무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함께 가계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재무관련 정책 개발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면접대상자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로서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량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가계재무관리 행동과 영향 변수 및 관련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각 재무관리유형에 맞는 재무관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1996. 4. 29). “맞벌이 부부 46% 수입공동관리”.
 고정자(1994). 맞벌이 부부가족의 가족자원,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97-116.
 김명자(1981).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2.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김정훈(1995). 부부사이의 재정의사소통과 재정만족도; 의사소통 유형과 수준에 따라. 소비자학연구, 6(2), 1-14.
 김정훈(1996). 재정관리 유형과 직업유형에 따른 맞벌이 주

부의 재정 의사소통과 재정 권력 인지. 대한가정학회지, 34(6), 275-285.
 김정훈(1997). 맞벌이 주부의 취업선호 인식과 가계관리관 유형에 따른 가계재정 의사소통과 재정권력 평등도 인지. 한국생활과학회지, 6(1), 29-39.
 매일경제(2005. 12. 27). “2005년 가족형태, 주말부부·기러기 늘어 1인 가구 급증”.
 문소정(1995).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가족과 경제생활. 여성한국사회연구소편, 사회문화연구소.
 변화순, 백경희, 김현주(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서병숙, 임정빈(1981). 도시와 농촌주부의 가정경제관리 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89-106.
 연합뉴스(2006. 4. 4). “직장인 91.3% 맞벌이 찬성”.
 윤정혜, 이기춘, 성영애(2005). 가계경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이무영, 이정우(199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4), 11-24.
 이연숙, 이순형, 유가효, 조재순(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한국노동연구원(2005).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맞벌이 부부의 소득. 노동부.
 한국여성개발원(2004). 성 및 혼인상태별 경제활동 인구. www.kwdi.re.kr
 허경옥(2003). 주말부부 가계와 비주말부부 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경제구조 분석 및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1-212.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2006년 4월 21일 접수, 2006년 5월 29일 채택)